

'안보-상생 결실' 나주 금성산 56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나주시-공군제1미사일방어여단, 산 정상부 상시 개방 협약 연내 상시 개방 목표...탐방로 설치·안전성 확보 등 협력 강화

나주시의 진산(鎭山)인 금성산 정상부가 56년 만에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나주시는 11일 시청사 이화실에서 공군제1미사일방어여단(여단장 이종서)과 '금성산 정상부 상시 개방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성산 정상부는 지난 1966년 공군부대 주둔 이후 매년 1월 1일 새해 해맞이 행사 날을 제외하고 일반인에게 개방이 제한돼왔다. 도심과 지척에 있는 진산이지만 시민과 등산객들에게 산 정상은 그저 아름다운 경관을 보는 것에 만족해야 했고 정상부 개방은 시민의 오랜 염원으로 지속돼왔다. 나주시는 시민의 오랜 염원을 풀고자 산 정상부 개방을 위한 관·군 간 논의·협력을 지속

해왔다. 특히 지난해 연말 윤병태 시장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군 관계자들과 만나 공군 방공포대 이전에 따른 산 정상부 상시 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윤 시장은 "나주시민들에게 금성산은 단순한 산이 아닌 정신적인 고향이자 수호신, 어머니의 품 같은 존재"라며 "과거 안보 논리에 국한되기보다는 이제는 시민들과의 상생을 가치로 군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때"라고 산 정상 개방을 요청했다. 그리고 이날 국가안보와 지역사회 상생을 가치로 관·군의 협력이 마침내 이뤄지면서 56년 만에 산 정상부 개방이라는 뜻깊은 결실을

맺게 됐다. 협약식에는 윤병태 시장, 이종서 여단장, 이상만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관·군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나주시와 공군제1미사일방어여단은 연내 산 정상부 상시 개방을 목표로 실무협의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상시 개방을 위한 노적봉 탐방(등산)로·윙터 등 개설, 공사 구간 사전 지뢰 확인·제거, 안전 인력 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의 진산인 금성산 정상부를 56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는 역사적인 협약을 체결해 뜻깊고 기쁘다"며 "공군과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을 통해 올해 산 정상부 상시 개방을 위한 협약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종서 여단장은 "금성산 산정상부 상시 개방을 위한 관·군의 협력이 결실을 맺게돼 기쁘



다"며 "탐방로 개설 등 국가안보와 더불어 시민 권익을 위해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겠다"고 화답했다. 나주=송준표기자



'2023 화순 고인돌 축제' 무료 셔틀버스 투입

도곡면 10개소·춘양면 2개소 등 총 12개소 주차장 완비

화순군은 오는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개최되는 '2023 화순고인돌축제'에 행사장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2023 화순고인돌축제'에 투입될 셔틀버스는 35인승 중형버스 4대로 각각 시간대를 분리해 △운주사 관광 셔틀버스 △축제장 탐방 셔틀버스 △개막식 셔틀버스 △EDM 페스티벌 셔틀버스 등 4가지 형태로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세부 운행계획을 보면 운주사 관광 셔틀버스의 경우 4. 21(금)·22(토)·23(일) 그리고 4.28(금)·29(토)·30(일) 등 총 6일간 09:00부터 18:00까지 하니움→춘양보호각→도곡안내소→운주사 코스를 1시간 간격으로 1일 8회 운행한다. 축제장 탐방 셔틀버스는 4. 21(금)·22(토)·23(일) 그리고 4.29(토)·30(일) 등 총 5일간 10:30부터 17:30까지 도곡→춘양 코스를 30분 간격으로 1일 14회 무료 운행한다.

또 개막식 셔틀버스는 4. 21(금) 당일 16:00부터 23:00까지 버스터미널→국민은행→미풍타운→치매안심센터→제일중→공설운동장 코스를 10~20분 간격으로 1일 15회 무료 운행한다. 마지막으로 EDM 페스티벌 셔틀버스는 4. 29(토) 당일 16:00부터 23:00까지 하니움→버스터미널→도곡→하니움→버스터미널 코스를 20~30분 간격으로 1일 13회 무료 운행한다. '2023 화순고인돌축제' 주차장은 도곡면 10개소, 춘양면 2개소 등 총 12개소에 1,723개의 주차면을 확보해 교통혼잡에 대비했다. 단, 도곡 종합안내소 앞 주차장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전용 배려주차장이다. 온통 노랑 물결을 이룬 유채꽃 평원을 배경으로 드넓게 펼쳐진 선사시대 시크릿가든에서 '2023 화순고인돌축제'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현장에는 봄꽃을 즐기려는 탐방객들의 발길이 분주하다. 화순=박승철기자

담양군, 제4회 예쁜 정원 콘테스트 개최

개인·근린 2개 분야 나뉘어...5월 12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

담양군이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활성화와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제4회 예쁜 정원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예쁜 정원 콘테스트는 2020년 제1회를 시작으로 담양군에서 입상한 달빛여행정원, 명지원은 산림청장이 후원하는 전라남도 예쁜 정원 콘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참여를 보이며

군민의 정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콘테스트는 개인주택이나 카페, 음식점과 단체, 시설 등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조성하여 가꾸고 있는 정원으로 개인과 근린,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5월 12일까지 정원의 특징과 사진과 참가신청서를 해

담양·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심사단의 서류와 현장평가를 통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3개소) 총 5개소로 군수 표창 및 현판이 수여되며, 전라남도 예쁜 정원 콘테스트에 담양 대표 예쁜 정원으로 참여할 기회가 부여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인문학과 원림의 문화도시 담양군은 한국정원문화원 건립,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사업 등 다양한 정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원을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곡성군, 신활력플러스 '디톡스테라피 아카데미 2기 기본교육' 마무리

주민주도의 지역발전 기반사업 자리매김에 박차

곡성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이 지난 10일 곡성레저문화센터에서 '디톡스테라피 2차 아카데미 기본교육'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농촌의 지역자산과 민간 조직을 활용해 특화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2차 아카데미 기본교육은 총 17개 액션그룹이 참여해 40여 일간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이해, 디톡스테라피 상품 개발과 활성화 방안 모색 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졌다. 특히 마지막 수업에서는 각 수강생들이 자신의 사업을 소개하고 신활력플러스와 연계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사업 계획서를 발

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열띤 분위기 속에서 자연 상태 유산균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발효음료와 분말을 생산하고 면역력 증가와 염증 억제, 장 기능 개선 등의 디톡스 효과를 제시한 '윤석식품 이승우 대표'가 우승을 차지했다. 이승우 대표는 "서로의 아이템을 공유하며 사업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남은 심화교육까지 잘 이수해 신활력 플러스에 참여하는 다른 액션그룹과 함께 지역 발전에 일조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심화교육은 기존 1기 교육 수료자와 2기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며, 5월 초에 개강될 예정이다. 교육은 50여 일간 진행되며 최종 수료



후에는 치유 콘셉트에 맞춰 식음료 상품화, 기존제품 리뉴얼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액션그룹 법인인 '곡성치유협동조합'에 가입 자격이 부여돼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곡성=양혜영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강판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널

포스코A&C